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우리의 기도 / 내가 매일 기쁘게 /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내 구주 예수님	다같이
대표기도		전춘우
*성경봉독	약 2:1~6	최민우
말씀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사랑의 주님이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동은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
하며 섬기리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약 2:1~6)

1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에 앉으라 하면 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a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 인종의 melting pot으로 불릴만큼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인족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언어와 문화적 선호도에 따라 서로 벽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에도 차별의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되었습니다. 그만큼 차별은 역사 이래 항상 존재하는 문제였는데, 그 뿌리에는 비교의식과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이방인을 품으셨고, 사회에서 소외 받는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가장 먼저 차별을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에 만연한 차별의 문제를 2-4절에서 문제 제기합니다.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별이란 단어의 뜻은 “얼굴을 받아들이다” 입니다. 즉,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그 사람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죄입니다. 부자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내게 이득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여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두가지가 다 악한 생각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않는 분이심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또한 이를 증거합니다 (삼상16:7, 행10:34-35).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5절). 주께서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천국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영광이 넘치는 곳이고, 영생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득한 곳이고, 밤과 눈물과 사망과 아픔과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받게 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사는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은 온 인류 뿐 아니라 교회도 오랫동안 잘못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성경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적용해서 노예제도와 백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합리화했던 잘못된 해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행17:2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8:19). 하나님의 구원과 제자의 대상은 이처럼 모든 민족, 즉 인류 전체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인종끼리는 형제, 자매로서 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형제지간에도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시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닙니다.

성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별에 따라서 주된 기능과 역할은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존재 가치, 능력면에서는 차별이 없이 만드셨습니다. 남과 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며 서로의 다름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는 둘은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주변에 실존하는 차별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산책

차별 문제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차별은 양방향 모두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족한 자들에 대한 차별의 마음은 죄입니다. 여기에는 이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나보다 월등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 대한 차별의 마음 또한 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대로, 부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특정 인종을 우리보다 우월한 인종으로 본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죄는 좀 더 복잡한 죄입니다. 첫째, 이것은 내가 속한 그룹을 낮게 보는 것, 즉 나의 존재감을 비하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차별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차별을 극복하려면 야고보가 말한대로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시에 부자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외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믿는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 나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성향은 없나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2.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차별이 죄라는 것도 확인하십니까?
3. 혹시 내게 부자에게 과도히 친절을 베푸는 차별심은 없나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렵 사라져
내 안의 주의 나라 이루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트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싱어, 건반, 드럼 (문의: 전승엽, 전하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예배팀 신청 QR

2024-2025년 청년부 회장 선거

- 4/21까지 추천자 추천 받고 있습니다.
-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 영적 리더를 지혜롭게 선출하기
원합니다.

청년부 단체톡방 신설

-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청년부 전체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알림 위주로 톡방이 운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아리/큐티모임 권장

- 청년부는 자생적인 동아리 모임/큐티 모임을 권장합니다.
- 가급적 모든 인원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 성경공부 모임은 목사님의 지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신약 통독

- 함께 참여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 통독표는 사무실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주일까지)
- 구약 통독은 5월 1일부터 시작

Youth 단기선교 기금 마련 세차

- 일시 :4월 20일(토) 오후 12:30~4:30

VBS 2024 봉사자 모집

- 6월 3일(월) ~ 6월 7일(금), 9:30AM~12:00PM
- 신청 :QR 코드로 ----->

환송

- 김소희 자매



VBS 봉사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2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_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